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2. 18.(월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장희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김미송 사무관(044-203-5654)

산업부, 자동차 232조 관련 자동차 업계와 「민관합동 대책회의」 개최

-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대미(對美) 아웃리치 총력 -

□ 미국 상무부의 **무역확장법 제232조**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**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**가 현지 시간 2.17.(일)부로 **제출 시한이 경과**함에 따라,

* 미국 상무부, 조사 개시('18.5.23) → 보고서 제출(조사 개시 후 270일내, '19.2.17한) → 대통령 조치 결정(보고서 제출 후 90일내, '19.5.18한)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2.19(화) 11:00 김용래 **통상차관보 주재**로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**「민관합동 대책회의」**를 개최, **향후 대응 방안 등**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.

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계획

- 일시 및 장소 : 2.19(화) 11:00 대한상의 소회의실4
- 참석자 : (정부)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(주재), 통상정책국장, 미주통상과장 등
  (업계)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, 관련 협단체 등

○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**대미(對美)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**하고,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**정부, 의회, 업계** 등에 대한 **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·설득(아웃리치) 전략을 집중 논의**할 예정이다.

□ 그간 우리 정부는 '18.5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**민관합동 특별팀(TF)을 구성**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, **관계부처 회의, 전문가 간담회 등**을 통해 **범정부·민관합동**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으며,

○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**서면의견서를 제출**('18.6월)하고, **대미(對美)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·설득(아웃리치)**을 통해 미국 **통상 분야 핵심 인사**를 대상으로 **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**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다.

* 한국정부·자동차업계·협회 등 명의로 서면의견서 제출

** 산업부 장관 訪美('18.6월), 美 상무장관 앞 산업부 장관 서한 발송('18.7월, 10월), 본부장 대표 민관합동사절단 파견('18.7월), 본부장 訪美('19.1-2월) 등

□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**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**하면서 **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**을 다하는 한편,

○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**사안별 대응전략도 마련**해나갈 예정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김미송 사무관(☎044-203-56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